

공공 부문 언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정희원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1. 머리말

현대 사회를 흔히 정보화 사회라고 말한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전달 내용만큼이나 전달 형식이 적절해야 한다. 전달 형식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은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을 잘 지키고,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문법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대중 매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히 열린 공공의 공간이다. 일반인들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말 표현을 접하게 되고 또 그것을 기억하였다가 사용하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방송이나 신문·잡지 등 권위 있는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바른 말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언어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 매체의 언어가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중 매체는 우리말 오염의

주무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대중 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의 언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2. 공공 부문 언어의 문제점

국립국어연구원은 국민 언어생활에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하였다. 이 사전 발간의 가장 큰 의의는 일반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는 어문 규범이 사전 표제어를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은 언어학적인 규칙이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하기가 어렵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표준국어대사전」의 발간을 통해 특정 단어의 규범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각 분야에서 어문 규범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정비된 규범을 바탕으로 어문 규범 준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2000년에 시작된 이 조사가 현재 4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조사 결과는 해마다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대중 매체 언어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규범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사실을 널리 알려 매체의 공급자에게는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바르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난 3년 간의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다.

- 2000년 :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아동 도서, 만화
- 2001년 : 정부 홈페이지, 방송, 신문 광고, 잡지, 한국어 교재, 학습지
- 2002년 : 방송,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해마다 조사 대상을 조금씩 달리 하였지만 신문과 방송, 또 최근 새로운 매체로 부상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2002년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조사 어절	오류 어절	조사 어절 대 오류 어절 비율	오류 유형		
				어문 규정	어휘	문법/문장
방송	42,501항목	2,569항목	6.0%	89.53%	6.0%	4.48%
신문	86,974항목	4,896항목	5.6%	64.26%	15.28%	20.47%
인터넷	56,748항목	4,283항목	7.5%	74.25%	9.27%	16.48%

2000년과 2001년의 조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통계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의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에 제시된 결과를 통해 매체별 오류 비율을 살펴보면 적은 차이기는 하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고, 신문에서 비교적 오류가 적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 등은 제외하고 관리자의 언어만을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오류가 적게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의 경우는 전문 교열자가 모든 기사 문장을 점검하는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 오류가 훨씬 적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방송과 비슷한 비율로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실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사 연도에 따라 오류 유형이 특별히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해를 거듭하면서 잘못 쓰던 것들이 바로잡혀 가는 것이 눈에 띄지 않고 항상 잘못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국어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매체 제작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뜻으로, 앞으로는 이 사업 결과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일부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매체 제작 과정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상 매체에 따라서는 오류 유형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신문은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의 오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띄어쓰기와 관련한 잘못이 매우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외래어·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과, 지나친 생략으로 의미 전달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송은 자막 외에는 모두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구어 투를 비롯한 비표준어의 사용과 발음상의 잘못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언어 사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쓴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잘못이 지적되었다.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있어서도 초보적인 수준의 오류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단순 교정상의 실수도 여럿 발견되었다. 특히 외래어·외국어를 한글로 적지 않고 원어의 로마자를 그대로 드러낸 것과, 소리가 비슷한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문맥에 맞지 않게 쓴 예들이 자주 나타났다. 이제 문제점들을 실제 예를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1. 어문 규정

가장 많은 오류가 발견되는 분야는 띄어쓰기이다. 어문 규범에서 띄어쓰기 규범을 둔 목적은 독자에게 의미가 더 쉽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많은 매체에서 붙여 써야 할 말은 띄어 쓰고, 띄어 써야 할 말은 붙여 쓰고 있어 의미 전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띄어쓰기의 원리는 한글 맞춤법 총칙에 제시되어 있는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은 매우 명료해 보이나 실제로는 특정 단위가 단어인지 아닌

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기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띄어쓰기 오류는 대개 다음 다섯 가지 경우로 유형화된다.

- (1) ㄱ. 감사하다는 말 밖에(→말밖에)/ 생후 6개월 부터(→6개월부터)/ 알아들을 수 조차(→수조차)/ 이 부분에서 만큼은(→이 부분에서만만큼은)
- ㄴ. 일곱마리(→일곱 마리)/ 5천만원(→5천만 원)/ 십은하씨(→십은하 씨)
- ㄷ. 의료 사고가 발생한지(→발생한 지) 10년 내에/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할 지(→찾아야 할지)
- ㄹ. 경기전망(→경기 전망)/ 무대위(→무대 위)/ 도둑맞은 금메달(→도둑 맞은)
- ㅁ. 큰 소리 치다(→큰소리치다)/ 잘 생긴 얼굴(→잘생긴)/ 드리블하고 있다(→드리블하고 있다)

(1ㄱ)은 앞말에 붙여 써야 할 조사를 띄어 쓴 경우이다. 조사는 단어이지만 자립성이 없으므로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 말이 조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밖에, -부터, -커녕, -조차, -같이, -보다’ 등 이 음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보조사의 경우나 둘 이상의 조사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에 주로 잘못된 띄어쓰기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를, -가, -에게, -에서’ 등 격조사의 경우나 보조사라 할지라도 ‘-는, -도, -만’ 등 일 음절어의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쓰는 잘못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틀리는 이 음절어 이상의 보조사 목록을 제시해 주고 이들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 조사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1ㄴ)의 경우는 띄어 써야 할 의존 명사를 앞말과 붙여 적은 경우이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 자립성은 없으나 명사의 구실을 하므로 명사처럼 앞말과 띄어 쓴다. 흔히 잘못 사용되는 의존 명사 띄어쓰기의 예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단위를 나타내는 말과 또 하나는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의 띄어쓰기이다. 즉 ‘10여 개, 100만 원, 다섯 번’ 등에 쓰인 ‘개, 원, 번’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과 ‘박 씨, 길수 군, 김 대통령’ 등에 사용된 ‘씨, 군, 대통령’ 등의 호칭어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과 호칭어라는 범주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매체 제작자들이 이들 부류에 속하는 말들을 띄어 써야 한다는 원칙만 분명히 알고 지키고자 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1ㄷ)의 예에서처럼 의존 명사와 형태가 같은 어미나 조사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혼동해서 잘못 띄어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어미 ‘-는데’와 의존 명사 ‘데’, 어미 ‘-니까’와 의존 명사 ‘바’, 어미 ‘-는지’와 의존 명사 ‘지’, 조사 ‘만’과 의존 명사 ‘만’, 조사 ‘뿐’과 의존 명사 ‘뿐’ 등이 있다. 이들은 형태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의미와 기능을 따져서 의존 명사일 때에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나 어미일 때에는 붙여 적어야 하는데 이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적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매체 언어 관리자들에게는 이들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1ㄹ)의 예들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한 구를 붙여 적은 경우이다. 특히 신문의 경우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하는 띄어쓰기 원칙이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 ‘여야의원’, ‘조사결과’ 등 명사와 명사가 인접해 있는 경우는 거의 모두 붙여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1ㄱ)과 같이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새 단어가 된 복합어의 경우는 붙여 써야 하는데도 띄어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특정한 단어 결합이 복합어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관점을 달리할 수 있어 엄격하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위의 예에서처럼 명백하게 굳어진 말을 띄어 쓴 경우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의 경우에는 어법에 맞게 써야 할 것을 소리 나는 대로 쓴 경우를 비롯하여 맞춤법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쓴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방송 자막의 경우에는 구어적인 표기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는 사이시옷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흔히 발견되는 오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2) ㄱ. 도와 드릴게요(→도와 드릴게요)/ 사랑할꺼야(→사랑할 거야))
- ㄴ. 노래말(→노랫말)/ 농삿일(→농사일)/ 회삿돈(→회사 돈)/ 머리속(→머릿속)/ 회수(回數 : →횟수)/ 촛점(→초점)
- ㄷ. 짐작게 했다(→짐작게 했다)/ 녀너치 않은(→녀너치 않은)/ 추측컨데(→추측건대)/ 마다지 않는다(→마다치 않는다)
- ㄹ. 시청율(→시청률)/ 재발율(→재발률)

(2ㄱ)은 ‘ㄹ’ 뒤에서 된소리로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ㄹ게’, ‘-ㄹ 거야’로 적어야 하는 것들인데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표기한 예들이다. 이 같은 잘못된 구어 표기가 많은 방송 자막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주 나타난다. (2ㄴ)은 사이시옷 표기의 어려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게 될 때 적도록 하고 있다. (2ㄴ)의 ‘노래말’과 ‘농삿일’은 표준 발음을 잘 몰라서 잘못 쓴 경우이다. 즉 ‘노래’와 ‘말’이 결합하는 경우는 [노랜말]로 소리 나므로 ‘노랫말’로 적어야 하고, ‘농사’와 ‘일’이 결합할 경우에는 ‘ㄴ’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 없으므로 ‘농사일’로 적어야 하는데 반대로 적은 것이다. ‘회삿돈’과 ‘머리 속’은 합성어 판단을 잘못된 경우이다. ‘회삿돈’은 합성어가 아니므로 ‘회사 돈’으로 띄어 써야 하고, ‘머릿속’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합성어이므로 띄어 쓰지 말고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한다. 그 밖에 한자어의 사이시옷 적기에서도 많은 잘못이 나타난다. 한자어 합성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다만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횡수’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갯수,

씻가, 땃가, 좃점'처럼 예외로 인정되지 않은 한자 합성어에 사이시옷을 적은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2ㄷ)은 '-하다'가 줄어질 때 앞말의 받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적은 것이다.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이 'ㄱ, ㄷ, ㅂ, ㅅ' 이면 '하'가 통째로 줄어들고, 그 외의 것이면 'ㅏ'만 줄고 'ㅎ'이 남아 뒷말이 거센소리가 된다. 그런데 (2ㄷ)에 있는 예들처럼 특히 앞말의 받침이 'ㄱ'인 경우 '하'를 줄이지 않고 쓰는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ㄷ)은 두음법칙과 관련한 오류이다. '룰, 렬'의 경우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더라도 'ㄴ' 받침이나 모음 다음에서는 '울, 열'로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다른 받침 소리 뒤에서도 '울, 열'로 적은 예들이 자주 나타난다. 그 밖에도 '이예요'와 '예요'를 잘못 구분해 쓴 것, 부사화 접미사 '-이/-히'를 잘못 쓴 것, 종결 어미 '-오'를 '-요'로 잘못 쓴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한편 방언 등 비표준어의 사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송 자막 등 구어체 문장에서 많이 발견된다.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쓴 경우 외에 대화를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의도적으로 구어체의 비표준어를 사용한 경우들이 있다.

- (3) ㄱ. 승리를 일궈냈다(→이뤄냈다)/ 고개를 떨궈다(→떨어뜨렸다)/
분위기를 돋궈다(→돋운다)/ 떡거리(→먹을거리)
ㄴ. 내음(→냄새)/ 간고등어(→자반고등어)
ㄷ. 이뻐진다구요(→예뻐진다고요)/ 니가(→네가)/ 지가(→제가)/
고추두 있구(→고추도 있고)

(3ㄱ)의 '일궈다', '떨궈다', '돋궈다', '떡거리' 등은 모두 사전에서 잘못으로 판정한 것들이고, (3ㄴ)의 예들은 지역 방언인데 신문이나 잡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아마도 이들이 비표준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표준어와 어감의 차이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쓰는 듯하다. (3ㄷ)의 예들은 방송에서 흔히 들 수 있는 구어체 표현들이다. 이인칭 대명사 '너', '너

회’, ‘네’ 대신 ‘니’를 쓰고, 어미 ‘고’, ‘라고’ 등을 ‘구’, ‘라구’ 등으로 쓰는 경우이다. 이런 말들은 방송 자막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방송에서는 음성 언어를 매개로 하는 특성상 발음 오류가 많이 조사되었다. 발음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장단음 구분과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이다(4ㄱ). 모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중 모음을 단모음화하여 발음하거나, ‘ㄱ’와 ‘-’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하는 발음(4나), ㅁ모음 역행 동화된 발음(4ㄴ) 등도 많이 나타났다. 기타 음운을 첨가하거나 탈락시켜 발음하거나, 받침 소리를 잘못 연음하여 발음하는 경우도 많았다(4ㄷ).

- (4) ㄱ. 비난[비난→비:난]/ 불법적인[불뻗찌긴→불법찌긴]/ 교과[교:과→교:과]
- 나. 귀찮게[기찬케→귀찬케]/ 안 되고[테고→되고/똥고]/ 물구나무서기[물구나무스기→물구나무서기]/ 정말[증말→정말]
- ㄷ. 있답니다[인땀니다→인답니다]/ 먹여 주기[메겨 주기→머겨 주기]
- ㄴ. 뭐 하려고[뭐 할려고→뭐 하려고]/ 줄게[주게→줄게]/ 불꽃이 [불꼬시→불꼬치]/ 값에다[가베다→갑썰다]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예들도 많이 있다. 대부분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이해 없이 익숙한 표기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흔히 나타나는 외래어 표기의 오류는 아래와 같다.

- (5) ㄱ. 화이팅(→파이팅), 후라이팬(→프라이팬), 화일(→파일)
- 나. 빠리(→파리), 앙뜨와네트(→앙트와네트), 도쿄(→도쿄)
- ㄷ. 주스(→주스), 캐주얼(→캐주얼)
- ㄴ. 테잎(→테이프), 네트워크(→네트워크)
- ㄷ. 윈도우(→윈도), 컨셉(→콘셉트), 워크샵(→워크숍)

(5ㄱ)은 ‘ㅍ’으로 적어야 할 f 소리를 ‘후’나 ‘호’로 적은 것이다. (5ㄴ)은 파열음 표기에서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지 않는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예들이다. (5ㄷ)은 파찰음인 ‘ㅈ’이나 ‘ㅊ’ 다음에 이중 모음을 쓴 것으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오류 유형이다. (5ㄹ)은 어말 무성 파열음의 표기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은 경우이다. 영어에서 어말의 무성 파열음은 단모음 뒤에서는 받침으로 적지만, 장모음이나 이중 모음 뒤에서는 ‘-’를 받쳐 적어야 한다. 따라서 (5ㄹ)의 예들은 ‘테이프’, ‘네트워크’로 적어야 한다. 또한 외래어 표기에서 허용되지 않는 ‘ㄱ’이나 ‘ㅍ’ 받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5ㅇ)은 모음 표기를 잘못된 것들이다. 이중 모음 [ou]는 ‘오우’가 아니라 ‘오’로 적으며, [ɔ] 발음도 ‘오’로 적는 것이 맞다. 그 밖에 ‘프랭카드(→플래카드)’, ‘퀵보드(→킵보드)’ 등 원어를 잘 모르고 쓴 표기도 자주 발견된다.

신문이나 방송 뉴스의 경우는 까다로운 외국 인명·지명의 외래어 표기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수퍼(→슈퍼), 지놈(→게놈), 디지털(디지털)’ 등 일부 외래어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따라 규범에 맞지 않는 특정 표기를 고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고유 명사들은 부득이하게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프로 팀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들의 이름이나 특정 상표나 회사 이름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게 정해진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사에서도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어휘

어휘 분야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어휘 자체를 잘못 쓴 경우와 외국어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를 분별 없이 남용한 경우이다. 어휘 하나하나에는 독립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어휘를 쓰면 문장 전체의 의미가 모호해진다. 따라서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써야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 (6) ㄱ. 역할이 아주 미비하고(→미미하고)/ 기획 동화의 비중도 꽤 많다(→크다)/ 여지없이 골대를(→골문을) 갈랐다/ 60 도 정도의 끓는(→뜨거운) 물에
 ㄴ. 과격(→과격하) 발언/ 이국적 정취가 물씬(→물씬 풍기는)/ 이산 상봉을(→이산 가족 상봉을) 신청한

(6ㄱ)은 어휘의 정확한 의미나 용법을 몰라 비슷한 낱말을 쓴 경우이다. ‘미미하다’를 써야 할 자리에 ‘미비하다’를 쓰는 것처럼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쓰는 경우도 많고, ‘많다, 높다, 크다’처럼 앞말과의 호응 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달리 선택해 써야 할 말들을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골문을 가른다’거나 60도의 물을 ‘끓는 물’이라고 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한 경우도 종종 발견되었다. 이러한 예들은 신문보다는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이 나타난다. 이 밖에도 ‘다르다’를 써야 할 자리에 ‘틀리다’를 쓰거나 ‘가리치다’와 ‘가리키다’, ‘벌리다’와 ‘벌이다’를 혼동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6ㄴ)의 예들은 지나치게 줄여 쓰려다 잘못을 범한 예들이다. 이런 예들은 지면이 제약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문에 자주 나타난다. 우선 자립적으로 쓸 수 없는 어근을 단어처럼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위에 예로 든 ‘과격’ 외에도 ‘강력’ ‘비롯’ ‘불구’ 등이 자주 나타난다. (6ㄴ)의 ‘물씬하다’는 국어에 없는 말이다. ‘물씬 풍기는’과 같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산’이라는 말이 ‘이산 가족’의 의미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이산’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헤어져 있음’의 의미로 이산 가족의 의미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산 상봉’은 ‘이산 가족 상봉’ 따위로 고쳐 써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지적되었다. 어느 정도 외래어의 사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국어 어휘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들은 바꾸어 쓰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 (7) ㄱ. 익일(→다음날)/ 수순(→절차)/ 다대한(→큰) 성과/ 흡결(→잘못)
- ㄴ. 헤로인(→여자 주인공)/ 클라이언트(→고객)/ 플레이어(→선수)/ 소프트하게(→부드럽게)/ 임팩트 있게(→강하게)/ 너무 큰 오버의 제스처가(→지나치게 과장된 몸짓이)/ 사이키델릭한(→환각을 불러일으킬 듯한)

(7ㄱ)과 같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들은 신문과 정부 홈페이지에서 종종 발견되었다. 이러한 말들은 대부분 국어사전에 실려 있어 그 뜻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해야 할 표현들이다. 그 밖에 외래어의 남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즘에는 문장 속에 한두 개의 영어 단어를 섞어 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외래어가 우리말에서 파생하거나 구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들도 나타나 외래어 남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문법 및 문장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하여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 (8) ㄱ. “…… 무척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 “…… 무척 부끄러웠다”
 라고 말했다
- ㄴ. 관중들에 손을 흔들고 있다 →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ㄷ. 천만에 말씀 → 천만의 말씀

(8)의 예들은 모두 조사를 잘못 쓴 경우들이다. (8ㄱ)은 직접 인용의 조사 ‘라고’를 써야 할 자리에 간접 인용의 조사 ‘고’를 사용한 것으로 신문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례이다. 신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라고’ 대신 ‘고’를 쓰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고’를 쓰려면 간접 인용문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라고’로 바

꾸어 써야 할 것이다. (8ㄴ)은 ‘에’와 ‘에게’를 혼동하여 쓴 경우이다. 여격의 경우 유정 명사에는 ‘에게’를, 무정 명사에는 ‘에’를 써야 하나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에’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 오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형으로 신문이나 방송 뉴스 등 보도 문장에 흔히 나타난다. (8ㄷ)은 발음에 이끌려 ‘의’를 써야 할 자리에 ‘에’를 사용한 경우이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부사격 조사들을 혼동하여 사용하거나, 꼭 필요한 자리에 조사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여럿 발견되었다.

조사만큼 자주 틀리지는 않지만 어미를 잘못 사용한 예들도 종종 발견되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형용사와 동사에 붙는 어미가 다를 때 이들을 혼동하여 쓴 경우이다.

(9) ㄱ. 달갑지 않는 (→않은) 별명

ㄴ. 어떻게 하겠냐는 (→하겠느냐는)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에는 ‘-는’이, 형용사에는 ‘-은’이 결합되는데, 종종 이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9ㄱ)에서 ‘않다’는 보조 형용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는’이 올 수 없는 자리이다. 마찬가지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형용사 어간 뒤에는 ‘-냐’를, 동사 어간 뒤에는 ‘-느냐’를 써야 하는데, (9ㄴ)은 이것을 혼동해 쓴 경우이다. 그 밖에 시제에 따라 달리 선택해 사용해야 하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따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사와 어미의 오용 예는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방송은 조사가 흔히 생략되고 문장 구조가 단순해서 오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문장의 오류 중에는 필요한 성분이 빠져 있거나,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이 잘못된 것, 수식 구성이나 접속 구성이 잘못된 것 등이 있었다. 그중에도 주어나 서술어 등의 필수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 (10) ㄱ. 마운드에서(보인) 침착한 행동을 칭찬해 주고 싶고/ 한 학급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할 만큼 (학생 수가 줄어) 빈 교실이 늘어났다.
- ㄴ. 설기현의 선발 출전은 체력을 감안했다(→체력을 감안한 것이다)
- ㄷ. 나라를 발전시킨 것에 대해 굉장히 평가하는 얘기가 있었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 ㄹ. 비가 오면 우산은 반드시 접이식이나 우비를 가져가야 한다. → 접이식 우산이나 우비를 가져가야 한다.

우리말의 특징 중 하나는 주어나 목적어 같은 주요 성분도 문맥상 예측이 가능하다면 쉽게 생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략할 수 없는 곳에서 생략을 하면 문맥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10ㄱ)의 예들이 그러한 경우인데 제대로 전달을 하려면 () 안에 있는 내용 정도를 보충해야 한다. (10ㄴ)은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호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체력을 감안한’ 행위의 주체가 ‘설기현의 선발 출전’이 될 수 없으므로 주어나 서술어 둘 중 하나를 문맥에 맞게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 밖에도 목적어나 부사어가 서술어와 호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된다. 수식 구성이 잘못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수식어나 피수식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사어가 체언을 꾸미는 것처럼 잘못된 수식 표현도 눈에 띈다. (10ㄷ)에서 ‘굉장히’는 ‘평가하다’를 직접 꾸밀 수 없으므로 ‘높다’나 ‘좋다’ 따위의 형용사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접속 구성에서는 구조나 의미가 다른 두 성분을 접속함으로써 잘못된 경우를 들 수 있다. (10ㄹ)의 예도 비동질적인 두 문장을 접속함으로써 ‘우산은 우비를 가져가야 한다’와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생겨난 것이다. 접속되는 두 부분을 같은 형식으로 조정해 주어야 한다.

문법적인 면이나 문장 구성 면에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표현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조사되었다. 외국어 번역 투의 부자연스러운 표현, 비슷한 요소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피동이나 사동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사

용한 경우, 중의적인 표현 등이 주로 발견되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혼동하여 쓴 경우도 여럿 발견되었다.

3. 개선 방안

3.1. 학교 교육의 내실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행한 지난 3년간의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공공 부문의 언어는 어문 규범뿐만 아니라 어휘, 문법, 문장, 표현 등 모든 층위에서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 언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언어 사용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어 능력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공공 매체 관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학교 교육을 통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은 입시에 대비하여 문학이나 국어사 등의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어문 규범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으므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막상 글을 쓸 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보다 실용적인 국어 지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 왔다.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에는 중학교에 ‘생활 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어문 규범뿐만 아니라 글쓰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거친 지금 청소년 세대가 성인이 되면 지금보다는 국민들의 언어 사용 능력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어 학습의 열풍과 인터넷을 통한 규범 파괴적 언어생활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의 성인 세대는 맞춤법 등을 잘 지켜 쓰고자 하는 의식은 있으나 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 쓰는 일이 많은

데 반해, 규범 파괴적인 통신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은 규범 언어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희박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규범 지식 교육과는 별도로 바른 국어 사용의 가치 등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기 영어 교육이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를 하고, 외국어의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외래어 남용과 외국어 번역 투 문장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영어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매체 제작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언론사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직접 매체 제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방송사의 경우는 기자나 아나운서 등 전문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을 비교적 꾸준히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KBS나 MBC, SBS같이 규모가 큰 방송사의 경우는 아나운서들을 중심으로 방송 언어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송의 오락성이 강화되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 인기 연예인 출신의 비전문가들을 방송에서 배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이들을 포함해서 해설자나 고정 출연자들에 대한 언어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실제 방송 언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오류가 이들 비전문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방송에 직접 출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나 방송 작가 등 방송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방송 작가들은 직접 방송 언어를 선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프로듀서들의 경우는 방송 출연자들이나 작가들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자신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방송 언어에 대한 기본 원칙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로듀서들이 규범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자막에서의 잘못 등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신문 기자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신문 기자들은 채용 당시에 이미 엄격한 채용 시험을 거쳐 선발되므로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우수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긴 수습 기간 동안 기사문 작성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된 결과를 통해 보면 신문이 다른 매체에 비해 더 나은 것은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같은 어문 규범 분야에 한정된다. 그 밖에 문장이나 문법, 어휘, 표현 부분은 다른 매체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나마 어문 규범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이유도 ‘교열’ 부문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교열 기자들이 문장의 잘못을 모두 수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처음 기사문을 작성하는 때부터 제대로 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외환 위기 이후 신문사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교열 인력을 줄여 가고 있고, 그 결과로 신문 문장의 품질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에 각 신문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재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의 경우는 신문, 방송 종사자와 달리 검증 절차를 거치거나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근래에 들어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져서 공공 매체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특별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아도 오류를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신문이나 방송 등과 달리 반침 적기 등 초보적인 수준의 규범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그렇다고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홈페이지 관리자들을 특별히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학교나 사회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일반인들의 국어 사용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덧붙여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민 언어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주시시켜 관리자들이 스스로 바른 언어 사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3.3. 매체 언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매체 언어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체 관리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기능을 넘어 사회의 국어 교사 역할을 하는 공공 매체의 관리자들이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제작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신문이나 방송의 제작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시간에 쫓기는 일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상의 오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잘못 사용한 언어에 대해서 누군가 감시를 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면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에도 신문이나 방송 매체의 언어 사용에 대한 감시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회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크지 않았다. 또한 여러 번 지적을 당한다고 해도 관리자들이 언어 사용상의 잘못은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여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국어 전문가들로 매체 감시 평가단을 구성해서 꾸준한 모니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국어연구원에서조차 조사 4년째인 2003년부터는 실태 조사 결과를 보도 자료로 내고 보고서로 퍼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별, 신문 기자별로 오류를 분석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오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